



조계종 1사찰 1가정 후원사업 추진

“자식처럼 아끼고 끝까지 보살필 터”

소년소녀가장·저소득 가정 청소년과 1:1 결연

조계종은 한 곳의 소속 사찰이 한 가정과 결연을 맺어 후원하는 결연사업을 벌여 나간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6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종로구청과 함께 후원 결연식을 갖고, 관내 불우청소년들의 후원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스님 20명을 대표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과 1대1 후원 결연을 약속하는 ‘후원 결연 약정서’를 김충용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 정화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속 스님들은 이날 참석한 효제초등학교 5학년 최예슬 양 등 청소년들에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합장주와 도서상품권, 후원자의 편지 등을 나누어 주었다.

법장 스님은 “우리 불교계와 조계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버팀목, 대들보가 되어주겠다”며 “오늘 인연을 맺은 이 학생들을 제자처럼, 자식처럼 책임지고 끝까지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도 “조계종의 스님들이 모여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드린다”며 총무원과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감사드립니다.” 6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후원 결연식에서 김충용(오른쪽에서 두번째) 종로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중앙종무기관 소속 스님들은 후원 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저녁 공양을 하고 차담을 나누었고, 법장 스님은 후원 결연을 맺은 20명 청소년들을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다사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결연식을 계기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사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해 ‘1사찰 1가정 돕기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찰에서는 후원 가정 청소년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 역할을 물론 생일카드 보내기

운동, 템플스테이 등을 열어 종단의 ‘1사찰 1가정 돕기 운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1사찰 1가정 돕기운동’은 부모의 실직, 사망, 카드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청소년이 전체아동의 8.7%인 100만명에 육박하자, ‘저학력-막노동-질병-가난-자녀의 저학력’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조계종 총무원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캠페인이다.

조계종 산하 2000여 사찰이 1가정씩 후원을 하면 2000여 세대 8000여 명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동참문의 (02)723-5101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news.com



이렇게 참여하세요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만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이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나으면 제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겠어요”

백혈병 투병중인 박준군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요즘, 꿈많은 고등학교 2학년 박준(17·순천 마산고·사

진군에게 장래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지난 4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끝없는 투병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화목했던 준이 가족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마앞에 모두들 절망에 빠진 듯 하다. 실상가상으로 이들의 병마를 마련을 위해 고생하던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몸져 누이고, 어머니와 누나의 막일로는 병원비는 고사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도 빠듯하다. 현재 준이는 힘든 항암치료를 마치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준이가 완치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골수이식비용은 준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도 저는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아프고보니 생명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이 나으면 제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겠어요.”

박준 돕기 후원 계좌: 농협 617-01-146875 (예금주-생명나눔실천회)

문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34-6602) 광주=이준엽 기자

‘자비의 등’ 수익금 장애우에게 회향

우리는선우, 9월 ‘추석맞이 세상 나들이’에 사용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수익금이 장애인 나들이 행사로 회향된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건국대 교수)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봉행한 ‘자비의 등 달기’ 행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자비의 등 달기’ 점등식을 준비하는 모습.

사의 수익금 2백여만원을 오는 9월 추석맞이 ‘장애우 세상 나들이’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성태용 이사장은 “올해 13회를 맞은 자비의 등 달기 행사는 나와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밝히려는 취지인 만큼 수익금 전액을 장애우들의 세상

제힘에 쓰겠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또 “앞으로도 각 사찰에서도 이러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가 많이 행해져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살리는 뜻깊은 등문화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는 1만원의 보시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채우 천도 감사 사랑 행복 평화 성공 합격을 기원하는 등을 장충단 공원에 밝히는 행사. 이때 이웃을 위한 등을 신청한 사람이름으로 받는 대상자에게 기원문이 담긴 나눔카드도 보내준다. 문의 (02)2278-8672

김철우 기자

“北 용천 탁아소 건립에 작은 힘 됐으면”

북한 용천지역을 돕는 자비의 손길에 지역사업 연합회에서도 나섰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광)는 지난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재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천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2백만원을 6월 14일 기탁했다(사진). 익산시청을 통해 이날 전달된 성금은 용천초등학교 탁아소 건립비용으로 지정기탁됐다. 익산지역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쌀 20가마도 함께 전달됐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승림사 주지)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자면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남한 불교계가 이럴 때 큰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며 “남북 불교계의

익산사업연, 성금 200만원 기탁 독거노인 돕기 쌀 20가마 보시



연합회와 익산시 불교신도회, 광·경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 10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승림사 주지 지광 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수석 부회장에 태봉사 주지 혜안 스님, 부회장에 관음사 주지 원성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063)862-6394

정성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해져 남북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용천참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정토를 발원하는 합동수륙 고현천도재를 가을 익산 미륵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익산불교사암

연합회와 익산시 불교신도회, 광·경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63)862-6394 박병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들에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

합니다.

- ◇본사·연구소·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금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준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